

## 74살에 '변호사' 꿈 이룬 할머니

육아 때문에 번번이 뒤로 미뤄야 했던 꿈을 70대 중반에 이룬 아르헨티나 할머니가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산이스드로에 살고 있는 74세의 알리시아 볼로메이 할머니이다. 그는 지난 달 국제법 졸업시험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받아 최고의 성적으로 산이스드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 졸업시험을 통과한 할머니(오른쪽)가 기다리고 있던 딸 및 손녀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tn.com.ar)

알리시아 할머니에게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는 건 일생의 꿈이었다. 그는 할머니는 결혼 후에도 몇 번이나 법대 문을 노크했지만 그때마다 아이가 생겨 계획을 미뤄야 했다. 할머니는 6남매를 뒀다.

변호사의 꿈을 다시 꺼내보게 한 건 변호사가 된 막

내딸이었다. 엄마의 평생소원이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잘 아는 막내딸은 엄마에게 "사무실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알리시아 할머니는 딸의 변호사사무실에 나가 일을 도와주면서 변호사에 다시 도전해보기로 결심하고 2018년 법대에 입학해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백내장수술을 부작용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며 공부를 포기할 뻔했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향학을 불태웠다.

알리시아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돌아켜 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이었다. 평생의 꿈을 이뤄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 브라질 죄수의 황당 도주극



▲ 전봇대 꼭대기에 올라서 있는 파비오 마르틴스. 사진=manastime.com

브라질에서 한 남성이 경찰의 체포를 피해 전봇대 꼭대기에 올라 24시간을 버티는 기행을 벌였다.

지난 4일 오후 4시30분쯤,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주의 이타비라에서 경찰의 추적을 받던 파비오 마르틴스(38)가 10m 높이 전봇대 위로 도망쳤다.

마르틴스는 장대 하나를 손에 쥔 채 전봇대 꼭대기에서 하루를 꼬박 버텼다. 어두운 밤, 경찰이 내려오라며 사다리를 가져다 댔을 때는 이를 장대로 쳐 내기도 했다. 경찰과 대치하던 마르틴스는 24시간만에 전봇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내려오자마자 쌀죽과 탄산음료를 섭취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마르틴스는 무장 강도 및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8년을 복역하다 최근 가석방됐다. 이번에 마르틴스가 경찰의 추적을 받은 이유는 가석방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위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마르틴스가 전신주 위에 올라가 있던 바람에 지역 내 380개 가구는 정전을 겪어야 했다. 전력회사 세미그는 "남성이 감전사할 위험 때문에 일부 전력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법 당국은 마르틴스의 가석방 규칙 위반 상황을 조사해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매일 200인분 식사 무료 제공하는 부부

가난한 이웃을 위해 매일 200인분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부부의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멕시코-베트남 커플인 이들 부부는 지난 4년 동안 매일 새벽 5시면 호치민 투득 도매 시장에 가서 식자재를 구입한 뒤 음식을 준비해 오전 8시 30분부터 배식을 한다.

날마다 새로운 메뉴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쌀밥, 야채, 고기나 생선의 메인 요리와 과일을 포함한다.



▲ 이웃과 나눔 음식을 준비 중인 김(오른쪽)과 그의 남편. 사진=vietnam.vn

부인 김 씨는 "사비를 털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지금은 기부금도 받는다"면서 "돈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채식도 식락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200인분의 식사는 15분

면 동이 난다.

김 씨는 "누구나 와서 식사할 수 있다"면서 "나눔은 배려"라고 믿는다. 비록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지만, 음식은 청결하고 영양이 있게 정성껏 준비한다"고 전했다.

김 씨는 과거 말레이시아에서 미용사로 10년간 일하며 퇴근 후에는 고아원,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찾아 직접 요리해서 음식을 제공해왔다. 2019년 베트남에 돌아온 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당을 차렸다.

부부는 남편의 고향인 멕시코로 이주할 계획이지만, 아직 이 일을 이어 나갈 사람을 만나지 못해 호치민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 Kyung Sook Yu, D.D.S

###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료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